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10년 8월 8일(日)
음력 6월 28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 The chongji news | 구독문의 02-552-1080 | 불기 2554년 제129호

하반기49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성료

"해탈절, 호국기원 조상천도 서원"

▲ 서울 경인교구 호국기원 대법회

불교총지종 전국 각 교구는 총기 39년 해탈절을 맞아 7월 16일 하반기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경인 교구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하늘사랑 야영장' 일대에서, 대구경북 교구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농월정에서, 부산경남 교구와 충청전라 교구가 문경 점촌 등지에서 각각 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대비로자나 불전 호념, 유가삼밀, 봉행사, 축가 합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 교구 산하 사원 스승과 교도 등의 화합한마당 노래경연과 장기자랑이 마련됐다. 부산경남 교구와 충청전라 교구 합동법회엔 부산경남 교구장 지광 정사와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법우 정사를 비롯해 각 사원 주교와 교도들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교구법회엔 교구장 지공 정사와 산하 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합창단 음성공양도 올려졌다.

효강 종령 예하는 호국기원대법회 법어에서 "우리 종단 내외전 승직과 교도들이 지난 49일 동안 나라를 위한 호국, 기원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연·무연중생의 영식천도를 위하여 용맹정진했다"며 "이제 원만히 회향하신 여러분의 공덕이 오늘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해탈절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묵은 죄업을 참회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자리"라며 "이번 법회의 동참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 성불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국안민기원법회 전일인 7월 15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는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9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 불사가 봉행됐다.

총지종 고유의 수행법인 49일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한 것으로 총기 4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궤를 제정하고 당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 49일간 2회 실시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호국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홍포하고 선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밀교 고승 명랑법사와 혜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총지종 연희단 연등축제 보현상 수상

"아름답고 역동적인 연희" 평가

▲ 총지종 연희단이 연등축제 보현상을 수상했다.

불기2554년 연등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단체와 개인 시상식이 7월 14일 오후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지종 연희단을 비롯해 총 22개 단체에게 보현상, 정진상, 원력상이 시상됐으며, 개인표창 1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총지종 연희단은 "아름답고 역동적인 연희를 준비하여 행사에 흥을 돋우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보현상을 수상했다. 보현상은 영화사 연희단을 비롯한 9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정진상에는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 몽골 아마르암갈당 포교당을 비롯한 6개 단체에는 원력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불교문화마당 외국인을 위한 한국불교소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비로자나 국제선원 자우스님을 비롯한 15명의 개인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되기도 했다.

이번 연등축제 시상식은 화합과 협력으로 축제를 만들어 온 많은 단체가 함께 축하를 받는 자리를 만들고 단체 내 신행조직으로 상을 확대하여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위 신행조직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조법설

번뇌(煩惱)는 실체가 없다

번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리(菩提)를 이룰 수 있다. 제법(諸法)이 공(空)이기 때문에 해탈(解脫)한다. 번뇌가 실재라면 성불(成佛)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은 일정불변이 아니고 공이기에 개오수행(開悟修行)의 의의가 있다.

기사제보

총지종보에서는 전국 각 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bota32@hanmail.net

총지종 소의경전『대일경』출간

화령 정사, 번역 한문원문 수록

▲ 총지종 발간《대일경》

화령 정사

총지종 소의경전인『대일경』이 지난 7월 15일자로 번역 출간됐다.

그동안『대일경』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단 내외로부터 이에 대한 출간의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에 법장원에서 출간하게 된 것.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역임한 화령 정사(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가 번역한『대일경』〈주심품〉은 심오한 진리를 가급적 쉬운 말로 표현한 독송본이다. 이번에 출간된『대일경』에는 주심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한문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전 해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일이 원문을 교열하고 현대적 표점을 달아 한문 원문의 해독이 쉽도록 하고 활자도 크게 해서 번역문은 물론 원전의 독송이 수월하도록 편집됐다. 화령 정사는 "『대일경』의 사상이 워낙 심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주석과 해설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꾸준히 수지독송함으로써 어렴풋이나마『대일경』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밀교행자들의 공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우선 〈주심품〉만 번역하여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일경』〈주심품〉

《대일경(大日經)》은《금강정경(金剛頂經)》과 더불어 밀교의 '양부대경(兩部大經)'이라고 불리며 밀교의 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전이다.《대일경》의 원래 이름은《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비로자나가 곧 진리의 당체인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이다. 이 경의 산스크리트원전은 남아있지 않으며 단편들이 다른 경전에 인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한역(漢譯) 경전 이외에도 티벳어역이 남아있는데 순서가 한역과 동일하지 않다.

한역《대일경》은 중국에 밀교를 전했던 선무외(善無畏) 삼장이 서기 724년(당 개원 12년)에 낙양 대복선사(大福先寺)에서 제자인 일행(一行)의 도움을 받아 번역했다. 모두 7권 36품으로 이루어진 이 경은 크게 교리부분과 실천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번역된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住心品)〉[약칭 〈주심품(住心品)〉]은《대일경》의 제1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대일경》의 교리부분인 교상(敎相)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2권 이하는 모두 실천부분인 사상(事相)에 대해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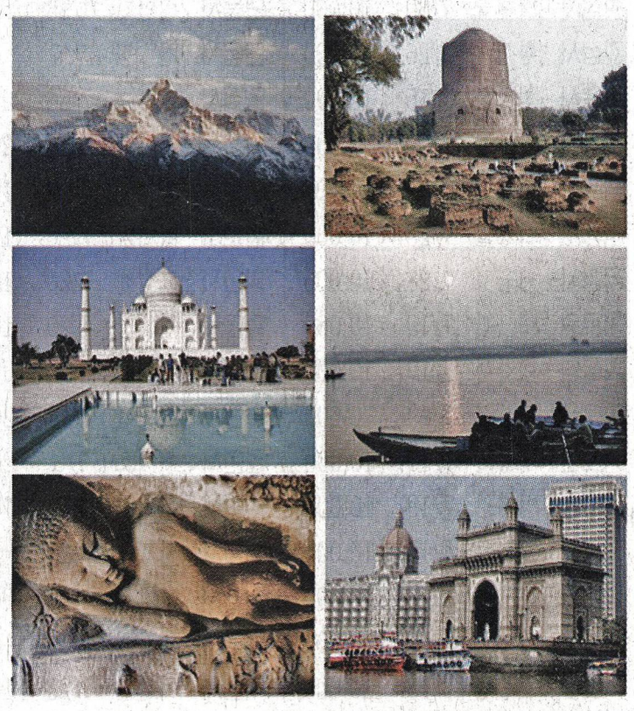
《대일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주심품〉의 이른바 '삼구(三句)의 법문' 가운데에 잘 나타나 있다. 대일여래의 절대지혜인 일체지지(一切智智)는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묻는 금강살타의 물음에 대일여래는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大悲)를 근(根)으로 하며 방편을 구경(究竟)으로 한다"고 답하신다. 그리고 보리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에 있으며 일체지지 또한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에서 구해야 한다고 설하신다. 이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설하시고 세간의 160심을 든 다음 이것을 초월한 출세간심과 육무외(六無畏), 십연생구(十緣生句) 등에 대해 설하신다. 이것이 〈주심품〉의 주요 내용이며 밀교사상의 철학적 바탕을 이룬다.

룸비니 티벳사원 개원법회 참석 및 인도불교 4대 성지 순례

불교총지종에서는 독일 랍텐센터에서 초청한 룸비니 티벳사원 개원법회 참석과 인도 및 네팔의 4대 성지를 순례합니다. 독일 랍텐 센타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사원의 개원법회에는 달라이라마께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룸비니 최초의 티벳사원개원법회와 불교의 4대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순례기간
  2010년12월6일(월) ~ 12월16일예정 (10박11일)
* 예상경비
  ₩ 2,400,000 (여행경비 일체포함가)
* 접수기간
  2010년 8월 31일까지 선착순 16명 마감
  9월 15일까지 선납금 납부예정(개별공지)
* 접수 및 문의
  통리원 T.02-552-1080~3 (문의: 배공주)

* 주요일정
  - 룸비니 개원 법회 참석
  - 최초의 성도지 보드가야
  - 최초로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 녹야원
  -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라
  -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 기원정사 및 죽림정사 방문
  - 삶과 죽음의 무상의 현장 갠지스강
  - 마야부인 제도를 위해 천상으로 오른 천불화현탑
  -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타즈마할, 아그라성
  - 도 국립박물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본 행사의 일정과 경비는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

총지종 '감로다실' 개원

"종단 사랑방,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

총지종 교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감로다실'이 7월 26일 개원했다.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이날 개원법회엔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을 비롯해 교도, 교무 등이 참석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감로다실을 단순히 차마시고 쉬는 문화 공간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종단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꼭 서원당으로 올 수 있게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혜숙 교무는 "감로다실은 쉼터 역할 외에도 차와 다기세트, 향 등을 원가에 구입가능하다"며 "교도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명소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지사, 바라밀센터에 공양미 후원

▲ 7월 20일 불교총지종 총지사에서 저희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쌀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바라밀지역아동센터를 지켜봐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총지사의 쌀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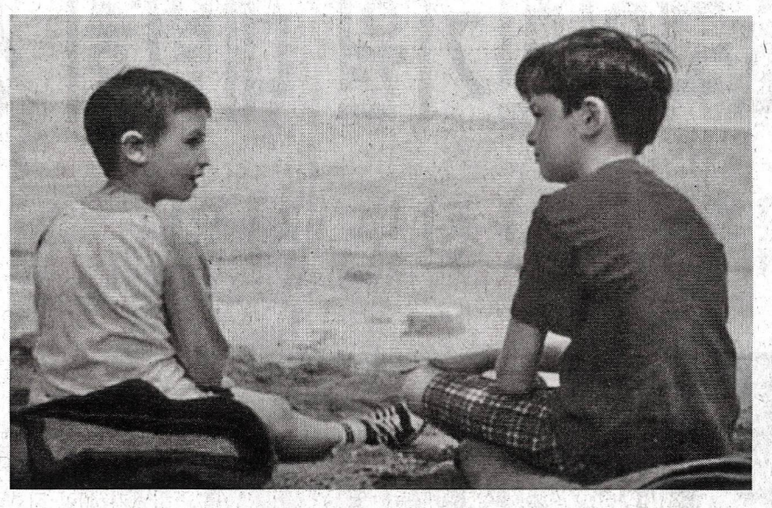
-총지종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김수경 복지사

총무부장 – 종보 편집팀 상견

▲ 인선 총무부장과 종보 편집팀이 7월 13일 상견례를 갖고 향후 종보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인선 총무부장은 "종보 편집팀에 재량권과 독립권을 줄 방침"이라며 "문서포교를 통한 종단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엔 종보 편집팀 이인성 회장과 최영해 총무 등이 참석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⑫ / 〈도둑맞은 여름〉

극락 가는데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다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어느 날 시주를 온 스님에게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스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노파는 밤이고 낮이고 '나무아미타불'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자신이 열심히 외던 '나무아미타불'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노파가 며느리에게 내가 외던 게 무엇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시어머니가 염불 외는 소리를 시끄럽게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약올려줄 심산으로 '나무아미타불' 대신 '앞집 김염감'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이제는 '앞집 김영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던 정성을 갖고 열심히 '앞집 김영감'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앞집 김영감'을 찾던 할머니가 어느 날 홀연히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머니 집에는 방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방광이란 둥근 반원의 빛기둥이 생기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징표가 할머니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극락에 가게 됐음을 의미하는 일화지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도는 '나무아미타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할머니가 '앞집 김영감'이라고 얼토당토않은 표현을 썼지만 할머니에게는 극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노력이 있었기에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도둑맞은 여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두 소년은 수영이나 달리기 등 10종 경기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를 표현한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종교에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참으로 깜찍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도둑맞은 여름〉은 미국 톱스타 벤 에플릭과 맷데이먼이 제작자로 참여한 아마추어 감독 등용문인 그린라이트가 배출한 첫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를 맡은 감독 피트 존스도 그린 라이트를 통해 메가폰을 잡게 됐고 〈도둑맞은 여름〉은 그의 첫 작품입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소년은 피트라는 이름의 8살짜리 소년입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피트 역을 맡은 에이디 스타인은 밝은 표정과 특유의 진지함, 그리고 자연스런 연기가 어울려 피트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창조해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아일랜드계 소년 피트는 학교에서 떠들다가 수녀 선생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수녀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피트는 자신의 절망적인 미래를 구원할 방법으로 전도를 생각해냅니다. 성 베드로가 이교도를 전도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신은 유대교인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카톨릭교로 전도하기 위해 유대교 회당 앞에서 공짜 레모네이드를 나눠줍니다. 이 부분이 좀 웃겼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부족한 어린 소년이 유대교 랍비를 상대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황당하면서도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결코 이 장면이 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피트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랍비도 그렇지만 카톨릭의 신부님조차도 확신은 없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소년에 비해서 깊고 넓은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친구가 천국 가는데 영성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철저하게 믿는 소년에 반해 정작 영성체를 관리하는 신부님은 영성체를 한낱 음식으로 여기는 모습이었으며, 랍비 또한 자신의 아들이 죽어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천국을 믿는 소년과 극적인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피트는 마침내 자신의 믿음을 전수할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랍비의 아들이지요. 이애는 백혈병으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자신이 천국에 감으로써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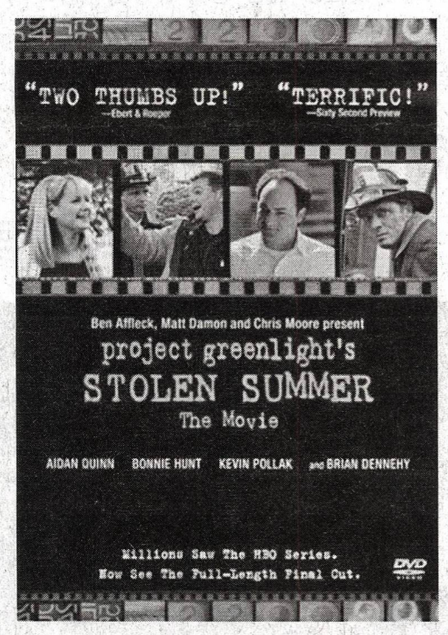
피트는 백혈병 소년에게 10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열 가지 과제를 완수해내면 영성체를 받게 되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꼬십니다. 꼬시는 게 아니고 확신에 차서 설득합니다. 피터만큼이나 순진한 어린 소년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마침내 엉뚱한 두 꼬마는 백혈병 소년의 천국가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그 10가지란 넓이 뛰기, 달리기, 장애물 건너뛰기, 깡통 넘어뜨리기 뭐 이런 것인데, 수영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백혈병 소년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장면에서는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수영 연습하는 장면은 유머러스한 장면이지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달리기나 수영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하다면 수영을 통해서도 천국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랍비의 아들이 죽고 슬픔에 빠진 랍비를 피트가 위로합니다. 랍비의 아들은 영성체를 받았으니까 지금 분명 천국에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이 정도면 피트가 랍비를 전도한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요. 신앙은 번잡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주더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압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부처의 경지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이나 가치관이런 게 끼어들기 이전 인간의 가장 건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아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여러 수행방법인 참선이나 염불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소년의 모습은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종교니 메시지니 이런 걸 떠나서 귀여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7/28	10,000	기로원	총지화	7/19	10,000	백월사	진 평	7/16	5,000	실지사	정경자	7/28	5,000
개천사	이희권	7/26	10,000	단음사	경병순	7/1	10,000	법천사	김정숙	7/2	5,000	실지사	정우석	7/21	10,000
개천사	전경택	7/28	20,000	단음사	경문지	7/1	10,000	법천사	시 정	7/19	10,000	운천사	박보경	7/29	20,000
관성사	박현숙	7/30	10,000	단음사	법연지	7/23	5,000	법천사	원만원	7/19	10,000	운천사	반야화	7/12	10,000
관성사	황성녀	7/26	10,000	단음사	천 공	7/5	4,000	벽룡사	양정현	7/16	10,000	일상사	수행월	7/14	10,000
관음사	신막심	7/15	10,000	덕화사	교도일동	7/28	200,000	벽룡사	양지현	7/16	10,000	정각사	구정희	7/22	20,000
국광사	박주열	7/28	10,000	덕화사	법 등	7/28	20,000	삼밀사	원 송	7/8	10,000	정각사	김문수	7/15	10,000
국광사	박호열	7/28	10,000	만보사	인간방생	7/19	210,000	삼밀사	인법계	7/8	10,000	정각사	박말연	7/1	5,000
국광사	이상월	7/28	10,000	만보사	한미숙	7/26	10,000	선립사	심지장	7/21	10,000	정각사	이정선	7/28	5,000
국광사	최윤정	7/28	10,000	밀인사	묘심해	7/20	10,000	선립사	정복지	7/21	10,000	지인사	허성동	7/30	20,000
기로원	대 관	7/19	10,000	밀인사	원 당	7/20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7/22	50,000	총지사	록 경	7/20	10,000
기로원	대자행	7/19	10,000	밀인사	이위임	7/5	100,000	수인사	김봉기	7/28	10,000	총지사	선도원	7/20	10,000
기로원	밀공정	7/19	10,000	밀인사	이재갑	7/15	20,000	수인사	장영택	7/1	50,000	총지사	이수영	7/29	20,000
기로원	법장화	7/19	10,000	밀인사	이재호	7/6	20,000	시법사	환수원	7/20	10,000	총지사	이수영	7/29	20,000
기로원	법지원	7/19	10,000	밀인사	이희원	7/8	10,000	실보사	이순옥	7/5	5,000	총지사	이연수	7/27	10,000
기로원	불멸심	7/19	10,000	밀인사	정정희	7/29	5,000	실보사	정법계	7/28	10,000	총지사	최해선	7/20	20,000
기로원	사홍화	7/19	10,000	밀행사	신정회일동	7/30	100,000	실보사	해정	7/28	10,000	총지종	이상희	7/19	10,000
기로원	상지화	7/19	10,000	백월사	류승태	7/16	10,000	실지사	송우섭	7/7	5,000	혜정사	무명씨	7/28	20,000
기로원	수증원	7/19	10,000	백월사	이갑진	7/26	10,000	실지사	이화수	7/14	10,000	화음사	송호영	7/15	20,000
화음사	수현	7/14	10,000												
화음사	자심관	7/14	10,000												
흥국사	지정	7/19	20,000												
	류승태	7/2	10,000												
	무명씨	7/30	5,000												
	박말조	7/19	5,000												
	안효정	7/27	20,000												
	이숙남	7/13	30,000												
	이혜성	7/13	20,000												
	이혜원	7/30	5,000												
	최순전	7/2	20,000												
	최순전	7/26	2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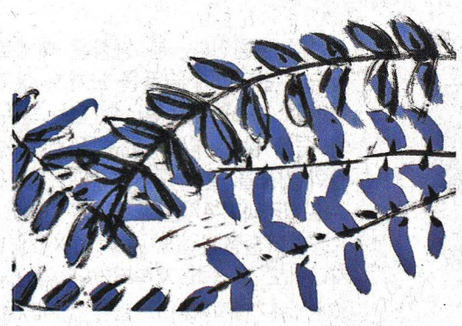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참 마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참 마음을 일깨우지 않는 다면, 아무리 애써 봐도 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면 스스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아 아는 사람은 본래 지니고 있던 참 성품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알고자 하거든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야 합니다.

-청담스님

이 옷과 밥과 집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한 땀 바느질도 안 했건만
나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점심 때 먹은 밥,
내가 벼 한 포기 심은 적 없건만
내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고 쉬는 집,
벽돌 한 장 몸소 쌓은 적 없건만
나를 포근히 받아줍니다.

이 집, 밥, 옷을 지으신
그 귀한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규태 (시인)

통(桶)자 인생

통 속 같은 아파트에서 자고
통 속 같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통 속 같은 지하철을 타고
통 속 같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마침내 통 속 같은 관(棺) 속에 들어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궤적입니다.
통 속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생각조차 통조림이 된 듯합니다.

이제 관념의 뚜껑을 열고 푸른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주에는 칸막이가 없고,
구름의 길에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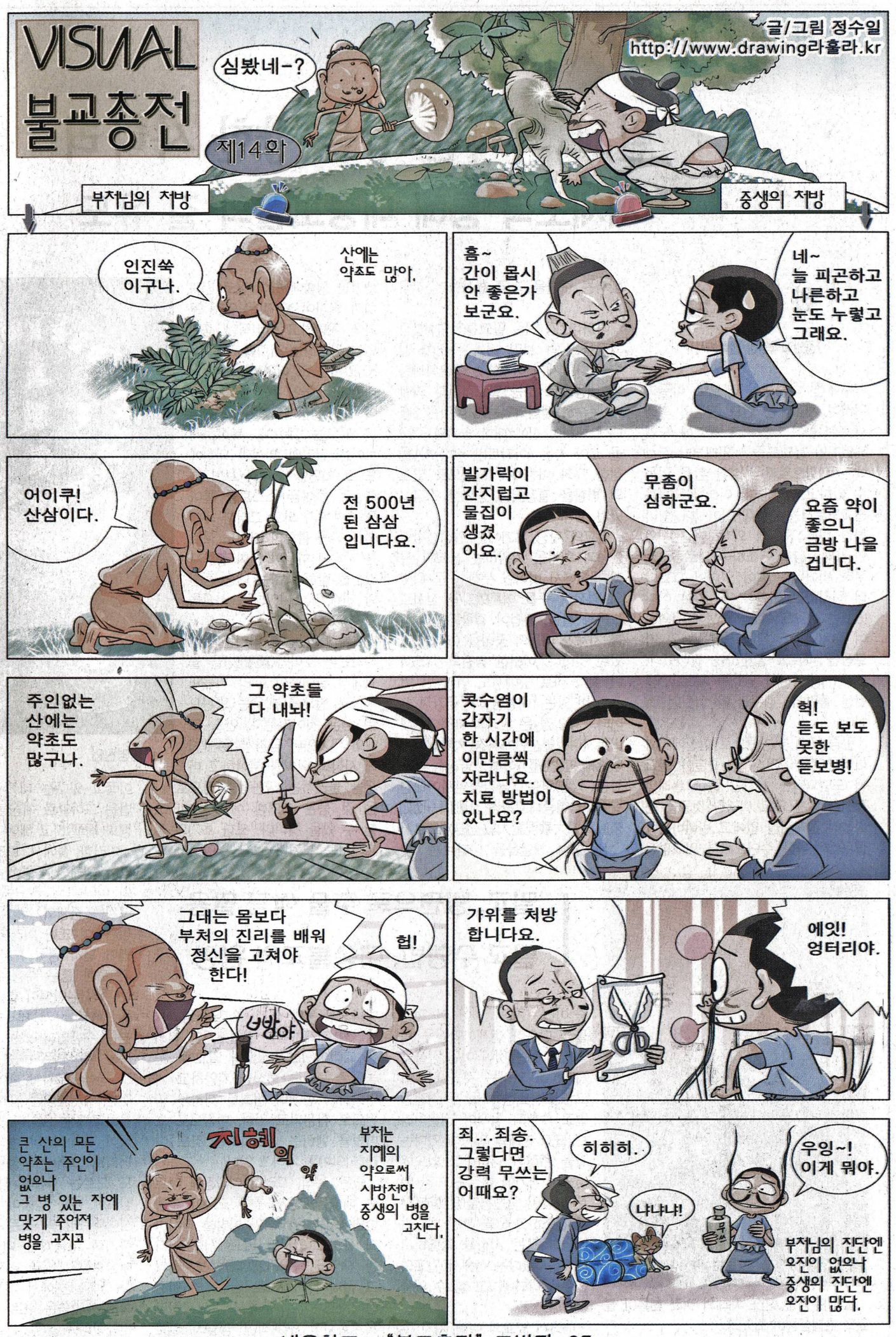
-장용철 / 시인

이달의 명상

다소잠(多少箴)

술은 적게 마시고 죽은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어라.
입은 적게 열고 눈은 많이 감아라.
머리는 자주 빗고 목욕은 적게 하라.
여럿이 지냄은 적게하고 홀로 자는 것을 많이 하라.
책은 많이 읽고 재물은 적게 쌓아 두라.
명예는 적게 취하고 욕됨은 많이 참아라.
착한 일은 많이 행하고 높은 지위는 적게 구하라.
마음에 드는 곳은 다시 가지 말고 좋은 일은 없음만 못한 듯이 여겨라.

-작가미상. 중국 명대 /출전: 암서유사(岩栖幽事)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25p

바다와 하늘이 마주하는 곳, 펜션 바하마(BAHAMA)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
함덕 해수욕장 근처 해안도로에 자리잡은 펜션 바하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구조 : 쓰리룸(거실 포함) 3실 / 원룸 4실

★ 6월 오픈

주소 :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 920번지
전화 : 010-9032-7114 / ~~(064)782-7822~~
대표 : 조 경 숙 (총지사 교도)

살기쉬운 밀교상식<31>

밀교 의식은 성불 향한 사다리

제재초복 통해 대승보살의 길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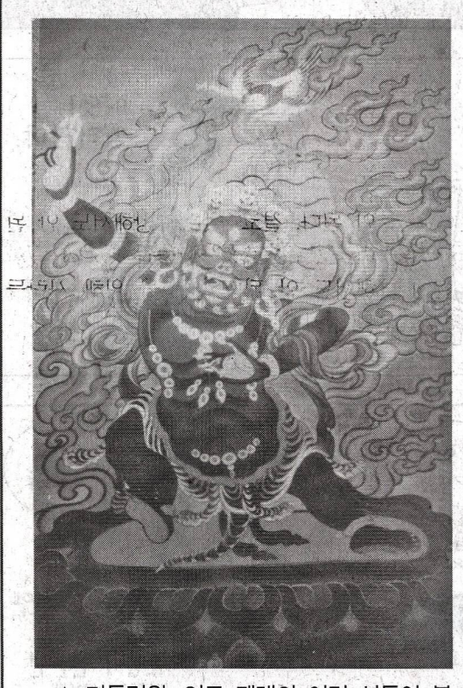
화 령
(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우매한 대중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하여 처음에는 인도 전통의 의례와 의식들이 무작위로 불교에 도입되었지만 불교도들은 원래부터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믿음은 불교도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에 의지하여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관조하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보다 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곧 삼보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불탑을 돌면서 '나무불'을 외웠던 것이다.

민중 교화의 방편으로 현실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주술이 불교에 도입되기는 했지만 불교 본래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순화하여 집착심을 없애고 반야바라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밀교경전에서는 주술을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밀교경전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4세기 이후에는 주술의례만을 내용으로 하는 밀교경전과 의궤가 무수히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3베다에 대하여 신에 대한 송가와 주문을 모아 놓은 〈아타르바 베다〉가 출현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으로 밀교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짐이었던 것이다.

밀교의 탄생 초기에는 일상생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듯한 주문 위주의 경전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로 주문과 결인, 관법이 결합되면서 성불 자체가 내용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이다. 『대일경』은 원래의 제목이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며 『금강정경』도 불공(不空)역은 『금강정일체여래진실섭대승현증대교왕경(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敎王經)』으로서 '성불'이나 깨달음을 나타내는 '현증'이라는 말을 넣어 이 경전들이 단순한 현세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불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 두 경전은 밀교 수행의 목적이 성불이라는 불교 본래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더구나 거기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인 즉신성불(卽身成佛)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승의 모든 사상을 종합하고 의궤화시켰다는 점에서 밀교의 진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두명왕. 인도 재래의 여러 신들이 불교의 호법성중이 되었다.

따라서 밀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행함에 있어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뜻 보기에 황당하고 신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내면에 깃들인 욕망을 승화하여 이를 성불에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보이는 밀교의 의례와 의식에도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의례와 의식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순화되면 자비심을 발하게 하는 대승 정신의 진수가 스며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원래 바라문의 의식이었던 호마법(護摩法)을 불교에서 끌어들여 우리 마음의 욕망과 번뇌를 태우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라든지, 인도 고래의 무기였던 금강저(金剛杵)에 사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마군을 물리치는 내면적 상징으로 삼은 것 등은 이러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의 밀교에서는 부처나 보살상 앞에서 향이나 꽃 등의 여러 가지 공양물을 올리며 제재초복을 기원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보다 고도의 밀교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형식을 지양하고 내면화하여 심성의 정화를 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음으로 호마법을 행하는 내호마라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광명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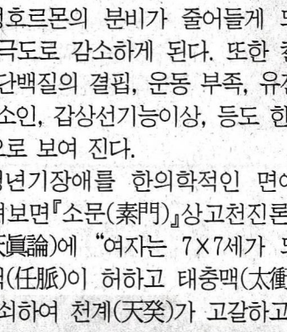
밀교, 방편으로 주술 적극 활용
밀교 수행법, 대승불교의 완성

중관, 유식, 그리고 여래장에 이르는 대승불교의 훌륭한 교학이 수행 방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밀교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종합하고 더욱 보완하여 그 철학적 바탕으로 삼았으며 실천면에서도 이를 훌륭하게 조직하고 체계화시켜 구체적인 성불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데에서 밀교의 수행법은 그야말로 대승불교의 완성이며 정화(精華)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밀교의 수행법이 의궤의 종류에 따라서는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은 중생의 폭넓은 교화를 위한 방편이며 또한 이러한 제재초복적인 면이 단지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수행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밀교에는 즉신성불을 지향하는 고도의 차원 높은 수행법이 있는 반면에 제재초복을 목적으로 하는 의궤법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밀교의 의식이 제재초복의 형식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성이 순화되고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며 자비심이 우러나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저절로 대승보살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대일경』에서 '방편이 곧 구경'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총지동의보감

갱년기의 증상과 치료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갱년기는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에게 일어나는 증상이다. 갱년기장애는 난소기능의 쇠퇴로 인해 생식기(生殖期)에서 비생식기(非生殖期)로 전환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때 신체적·생리적·정신적으로 여성의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갱년기장애의 증상은 보통 월경불순, 안면홍조, 불면증, 정신적인 장애로 생기는 불안, 초조, 가슴두근거림, 우울증, 노인성 질염, 방광염, 골다공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골다공증을 들 수 있는데, 뼈의 건강정도가 되는 뼈의 밀도가 갱년기 폐경 이후에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극도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칼슘과 단백질의 결핍, 운동 부족, 유전적인 소인, 갑상선기능이상, 등도 한 원인으로 보여 진다.

갱년기장애를 한의학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소문(素門)』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에 "여자는 7X7세가 되면 임맥(任脈)이 허하고 태충맥(太衝脈)이 쇠하여 천계(天癸)가 고갈하고 지도(地道)가 불통(不通)하여 경수(經水)가 단절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7X7=49세를 전후, 즉 갱년기 여성의 생리적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년기가 되면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여 여성 생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월경이 폐지되고 심신 양면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갱년기장애라고 한다. 따라서 갱년기장애는 생리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장애는 병적 현상이므로 치료를 요하고 있다.

한의학 고전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간기울역증(肝氣鬱逆症), 월경과기부지증(月經過期不止症), 연미로경수단증(年未老經水斷症)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변증론치 하였다.

(1) 간기울역증(肝氣鬱逆症)

간기의 부조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인성 질환이다. 본 증상은 대체로 가슴이 답답하며 슬픔을 느끼기 쉽고 억압된 감정을 발산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치료는 뭉쳐 있는 간의 기운을 풀어 주어 소통시킨다.

(2)월경과기부지증(月經過期不止症)

갱년기출혈을 의미하며 7X7세가 지나서도 월경이 지속되거나 임상상 50~55세가 지나서도 월경이 지속됨을 말한다. 원인은 풍한(風寒)의 나쁜 기운이 자궁에 침입했거나 우리 몸에서 기(氣)의 원천인 원양(元陽)이 허탈 되거나 간과 비장의 기운이 울결돼서 생긴다.

간혹 자궁근종을 지닌 여성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치료는

- 기와 혈을 보하면서 풍냉(風冷)한 기운을 쫓아내야 한다.
- 원양(元陽)을 보익하고 자궁의 수축력을 증강시켜 준다.
- 간신을 보해 주고 비의 기운을 북돋우면 비장이 혈액을 잘 조정하고 간이 혈액을 잘 저장해서 월경이 조절된다.

(3)연미로경수단증(年未老經水斷症)

조기폐경을 말하는데 임상상 30~40세 정도에 오는 폐경을 말한다. 원인은 신기(腎氣)가 평소 허한데 간, 심, 비의 기운이 함께 막히면 경혈을 생성·운화하지 못하여 월경이 끊긴다. 치료는 혈허증일 경우 양혈(養血)을 위주로 하고 기허증일 경우 보정(補精)하고 개울(開鬱)한다.

▶도움이 되는 생활법

1. 우유및 유제품이나 두유등을 꾸준히 복용해 골다공증의 진행과 악화를 막는다.
2. 과일 및 채소 등을 적당 섭취해 혈액을 맑게 한다.
   단, 야채의 경우 과다섭취보다는 살짝 익혀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속이 냉한 경우 냉장과일이나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과다한 지방질의 섭취는 혈액을 탁하게 하지만 일정량의 단백질공급을 위해 담백한 부위 의 살코기를 섭취한다.
4. 해산물(미역, 김, 다시마)등과 생선, 멸치 섭취
5. 콩이나 된장, 두부 등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상열감을 감소시켜준다.
6. 술, 담배, 카페인 등은 뼈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섭취를 제한한다.

상담문의 ☎ 02)545-0072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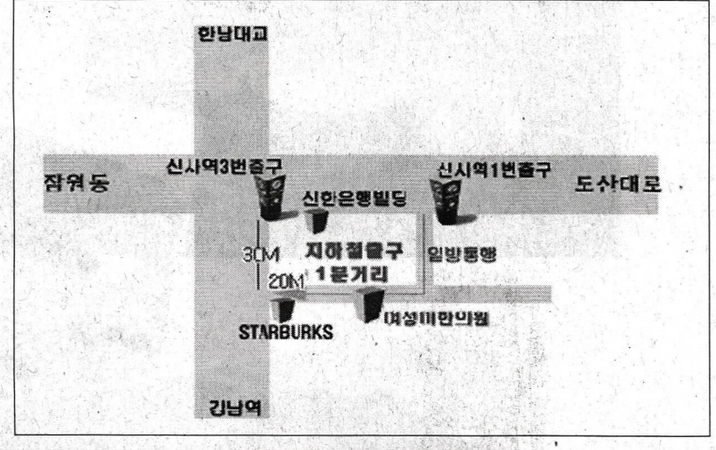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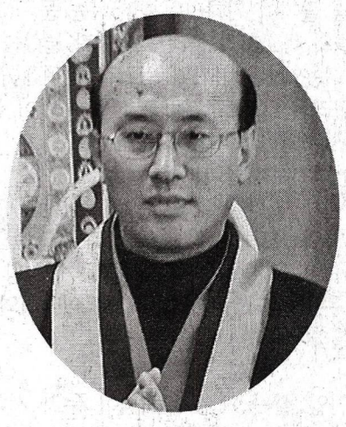
육아TV "전문의 상담"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 고찰 (上)



원 당
밀인사 주교

불교의 구경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수행에는 난행문과 이행문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난행문이 자력적 성격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라면 이행문은 타력적 성격으로 불, 보살님의 중생구제의 구제력에 의지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길입니다. 중생들을 고난과 액난에서 건지겠다는 불, 보살님의 중생구제의 본원력을 믿고 이에 의지하는 타력적 성격의 신앙으로는 정토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미륵신앙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으로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케 하려는 서원을 세운 관음보살의 본원력과 위신력을 믿고 의지하는 관음신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경전에서 관음신앙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관음보살은 위신력을 갖추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하여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여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음보살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널리 신앙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밀교 경전인『대승장엄보왕경』은 관자재보살의 육도중생 구제의 대비원력과 위신력을 설하고, 세존께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은 인연과 육자대명다라니의 의미와 지송공덕에 대하여 밝힌 경전으로 관음보살과 육자대명다라니가 결합하여 변화된 밀교의 관음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승장엄보왕경』을 통하여 관음신앙의 밀교적 성격에 대하여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관음신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인 기원후 1-2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초기 관음신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입니다. 이러한 관음신앙은 기원후 1세기 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간다라(Gandhara) 지방에서 발견된 관음보살상과 함께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원후 1세기 경 부터 전개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음신앙의 또 다른 기원은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의 원어는 아발로끼떼슈와라(Avalokitesvara) 입니다.

어원은 아발로끼따(Avalokita)와 이슈와라(Isvara)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세간을 관하여보는 신' 또는 '현상세계의 최상의 주재자' 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서 이슈와라(Isvara)는 '자재신' 즉 힌두교의 절대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힌두교의 인격신 이슈와라(Isvara)의 절대자의 개념을 관자재보살의 명칭에 수용하여 관음신앙을 전개 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원은 석가세존이 성불은 하였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 자비의 덕을 갖춘 보살신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응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응화신의 근본은 석가세존이 본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신설은 밀교에 이르러 극대화 되어 모든 불보살의 근본은 대일여래라 하여 관음도 바로 대일여래의 응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신통력과 지혜와 자비의 방편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법신불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승 보살사상의 핵심은 이타에 있으며 관음은 자비의 대표 보살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핵심 신앙으로 관음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관음신앙은 주로 현세적 고통을 구제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되어오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일심칭명의 공덕으로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신통력과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방삼세에 보문시현의 신통력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응현하여 설법하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다양한 응신으로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은『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33응신으로 보문시현하며, 『수능엄경』에서는 32응신으로 나타나며,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20신으로 응신하는 모습을 설하고 있습니다.

육자대명 다라니 설명 "관음도 대일여래의 응현"

『대승장엄보왕경』의 성립시기는 인도 카스미르의 길기트(Gilgit) 근방에 있는 탑형의 구조물 속에서 1931년 7월 슈타인(Sir Aure Stein)에 의하여 발견된 산스크리트 불교문헌에서 성립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기트 산스크리트 문헌은 서지학적 입장에서 7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대승장엄보왕경』도 이 문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전의 성립시기를 6세기 이전에 성립하기 시작하여 10세기경에 완성한 것으로 결정짓기도 합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범본원본과 티벳트역과 한역이 현존하고 있습니다.『대승장엄보왕경』은 게송본과 산문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전의 산문본은 야란타라국의 밀림사 출신 삼장사문 천식재가 한역했습니다. 천식재는 980년에 중국에 와서 1000년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대승장엄보왕경』을 번역한 것으로 보아 10C 말에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트역은 8세기 초 인도학자 지나미트라(jinamitra)와 다나시라(Danasila) 그리고 티베트 번역가 예셰데(Ye ses sde) 등이 함께 번역되었습니다.

육자대명다라니의 유래를 밝히는 또 다른 문헌으로 『마니카붐』이 있습니다. 이 경문은 티베트의 『관음경』이라 하며, 티베트의 제5대 송첸감포왕(Sron btsain sgam po)의 유훈을 모아서 기록한 티베트불교의 보전입니다.

이상의 유래에서 살펴보듯이 육자대명다라니의 성립 시기는 7세기 초의 『마니카붐』의 성립을 토대로 하여 차츰 10세기 말에『대승장엄보왕경』이 번역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세존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제개장보살의 청에 의해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제개장보살의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을 인연을 묻는 질문에 의해서 부처님 자신이 과거세에 육자대명다라니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던 인연과 그 공덕을 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권 중에서 1권에서 3권 중간까지는 관자재보살의 위신력및 공덕과 『대승장엄보왕경』을 설하는 공덕 등이 설해져 있고, 육자대명다라니에 관한 내용은 주로 3권 말에서 4권에 걸쳐서 설하여져 있습니다. (다음호 계속)

진리의 여울

◇ 연꽃처럼

아, 짧도다. 인간의 생명이여, 백 살도 못 되어 죽어버리고 마는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것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으로 해서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잃게 된다. 이를테면, 눈을 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현명하게 이 이치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성인은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사특한 악을 털어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일에도 유달리 집착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에 의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 않고 탐욕에서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經集〉

* : 집착의 집

◇ 수행자

"태양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께 세속에서 멀리 떠나는 일과 평안의 경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보아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안에 들 수 있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근본은 억누르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애착까지도 눌러 버리도록 항상 명심하여 배우라. 될 수 있는 한 안팎으로 이치를 알아 두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서는 안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이 평안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뛰어났다든가 나는 뒤떨어졌다든가 혹은 나는 대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자기가 잘 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수행자는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도 말아라.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은 고집할 것이 없다. 하물며 어찌 버릴 것이 있으랴. 바닷물 속에서는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하듯이, 고요히 멎어 움직이지 말아라. 수행자는 무슨 일에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눈을 뜨신 분께서는 몸소 체험하신 법, 위험과 재난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바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계율의 규정이나 정신안정의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탐내지 말아라.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하라. 맛에 탐착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아라.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된다.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라도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 음식이나 옷을 얻더라도 묵히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 해서 걱정해서도 안 된다. 마음을 안정 시켜라. 당황해서는 안 된다. 후회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수행자는 한가하고 고요한 앉을 자리와 누울 곳에서 살아야 한다.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으로 오락과 이성간의 교제와 겉치레를 버려라. 내 제자들은 아타르바 베다의 주문이나 해몽. 관상.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 말고,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아라.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상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해서도 안 된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또 수행자는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책략적인 언사를 써서도 안 된다. 오만 불손하거나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피하라. 조심해서 속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나 지혜에 대해서 혹은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출가 수행자는 말 많은 세속인들한테서 욕을 먹거나 불쾌한 말을 많이 듣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은 적대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 이치를 알아 잘 분별하고 늘 조심해서 배우라.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평안임을 알아라. 그르므로 여래의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따라 배우라." 〈經集〉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흥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흥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정사

세상사는 이야기

천변 꽃길에서

하늘이 노하기라도 한 듯,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우르르 쾅쾅, 대지를 뒤흔들고 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물을 쏟아 붓고 있다. 마치 우리들의 잘못을 꾸짖고 벌을 주려는 것 같다.

전시관에 봉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번개가 내게 떨어질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다. 나도 모르게 염불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웃음을 지었다. 역시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 용기를 주는 데에는 우리들이 늘 외우고 있는 '옴마니반메훔' 진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다.

내게 진언이 있는 이상 무엇이 두려우랴. 용감하게 집을 나서는데 마침 남편이 지하철 역까지 태워 주어서 무사히 물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다행히 서울에 도착하니 비가 그치고 번개도 치지 않았다. 안산과 서울 대방동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무사히 비를 피해서 전시관에 도착했다. 오늘 같은 날은 단체관람객도 별로 없어서 책이나 읽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며 가볍게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1대1 인터뷰는 처음이라 걱정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진솔하게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오늘은 찬찬히 풀과 나무와 꽃들을 보며 그들과 이야기 하며 왔다.

지하철역 앞 녹지대에 새하얀 개망초꽃이 활짝 피었다. 이름처럼 소박한 꽃이 하나 가득 피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꽃 하나하나가 계란프라이 같아서 난 그냥 계란프라이 꽃이라고 부른다. 멀리서 보면 메밀꽃 같다.

여러해 전 봉평 메밀꽃축제에 갔을 때가 생각 난다. 보이는 들판과 산비탈이 온통 하얀 메밀꽃으로 바람이 불면 꽃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달빛 아래에서는 하얀 소금을 뿌려 놓은 것 같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밤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냥 돌아왔었다.

언젠가는 달빛이 아름다운 때를 맞추어 다시 찾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지만 지금까지 다시 찾지 못했다.

달빛 아래 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신비로운 모습을 언젠가는 꼭 보러 가야지.

역 앞의 개망초꽃 군락지를 지나 모처럼 산책길을 따라 걸었다. 하천에는 그 동안의 장맛비로 물이 많이 흘러서 제법 하천다워 졌다.

하얀 백로가 흙탕물에서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는 하천 가에는 노란 달맞이 꽃도 피었다. 내가 좋아하는 하천 가 산책길에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손톱에 예쁘게 물을 들여 주던 봉숭아가 길가에 줄을 지어 피어 있다.

빨리 따다가 손톱에 예쁘게 물을 들이라는 듯 활짝 피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엄마가 딸을 데리고 봉숭아 꽃과 꽃잎을 따서 작은 비닐 봉지에 소중하게 조금씩 담고 있다.

아마 오늘밤 엄마는 딸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있으리라. 그 추억은 어린 딸에게는 훗날 따뜻하고 다정했던 엄마로 기억되고 엄마와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봉숭아 꽃 길을 지나면 길 옆으로 코스모스가 곱게 피어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다. 계절을 잃은 코스모스는 왜 이 더운 한 여름에 활짝 피었을까? 이상해진 날씨 탓에 코스모스도 때를 맞추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부지런히 꽃을 피워 빨리 사랑을 받고 싶어서일까?

코스모스는 서늘한 가을바람을 맞아 가녀린 모습으로 하늘거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따가운 햇빛을 받아 더위에 지친 모습이 안쓰럽다.

세찬 장맛비를 맞아 가냘픈 몸매로 버티지 못하고 여기 저기 쓰러져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그래도 그 모진 환경을 꿋꿋하게 이겨 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쁜 색깔의 꽃을 피워낸 많은 꽃들이 대견스럽다.

"내년에는 참고 기다렸다가 서늘한 가을 바람과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더 예쁜 꽃을 피우기를 기대 할께."

-박묘정

불교설화 <46>

살아있는 부처님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집집마다 다니며 곡식이나 돈 등을 보시 받는 일인 탁발을 오셨습니다. 스님을 보는 순간 소년은 스님의 맑고 기품 있는 모습에 완전히 반해 버렸습니다. 소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로구나……'

스님이 소년의 집에서 나가 멀리 사라지자 소년은 한참 동안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저 스님보다 더욱 훌륭하시겠지?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던데 어디를 가면 만나 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소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살아 있는 부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소년은 우연히 거리에서 다시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매우 기뻐하며 스님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어디 가면 살아 있는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거라.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분이 바로 네가 찾는 살아 있는 부처님이니라."

소년은 스님이 일러주신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며칠 뒤, 소년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살아 있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마침내 길을 떠난 것입니다.

소년은 먼저 스님들이 사는 깊은 산 속의 절로 찾아갔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소년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스님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절에서도 그런 분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실망하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살아 있는 부처님은 산 속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복잡한 거리와 시장 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다 헤진 저고리를 누덕누덕 기워 입은 사람은 어쩌다 한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은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강과 산을 지나 사막과 바다 근처에도 가보았습니다. 늪 지대와 호수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살아 계신 부처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꼬박 3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정든 집 앞에 당도하니 소년은 어머니 생각에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한편,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어머니는 문 밖에서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 엉겁결에 뒤집어 벗어 놓은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고 섬돌에 벗어 놓은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소년은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살아 있는 부처님이 우리 집에 계셨네!"

소년은 후다닥 달려가 그리운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 만일 살아 계신 부처님이 우리 시대에 함께 존재한다면 아마 그분은 지극한 사랑을 가진 분일 것입니다. 또 자비심이 넘치는, 매우 너그럽고 위대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 만나 뵙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느 신께서 각 가정에 부처님과 같은 존재를 한 분씩 보내 주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과 너그러움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아름다운 존재를 한 분씩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법정스님이 들려주는 참 좋은 이야기 중에서)

- 삼일화

만다라 세상

바로 지금(當下)이 중요하다

우리는 '영원'을 갈구한다.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의 이 순간들이 '영원'인 것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일 따름이다.

'바로 지금'을 떠나서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을 떠나서 마음의 평화나 육체적 안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 편안함을 성취할 수 있어야한다. 어느 때를 기다려 성취할 것인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후회 등... 일체를 놓아버려야 한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걱정 따위도 떨쳐 버린 채,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만 좌선이나 지금하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이를 생활 속에 펼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밥 먹을 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잠잘 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공부할 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일할 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죽을 뿐,
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평상심이 곧 도'라고 여기게 됐던 이 말은 마조도일(709~788)의 상당법어에서 비롯된다.

비슷한 말로 '착의끽반 시송뇨(着衣喫飯 屎送尿)'도 있다. 도는 의복을 걸치고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는 일상생활의 행위에 있다는 말이다. 도가 일상생활에 있다는 생각은 옛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일을 일상생활의 행위에 근거해 짧막하게 한마디로 단언한 것은 역시 마조의 특출한 선기를 느끼게 한다.

마조가 직접 설파한 평상심이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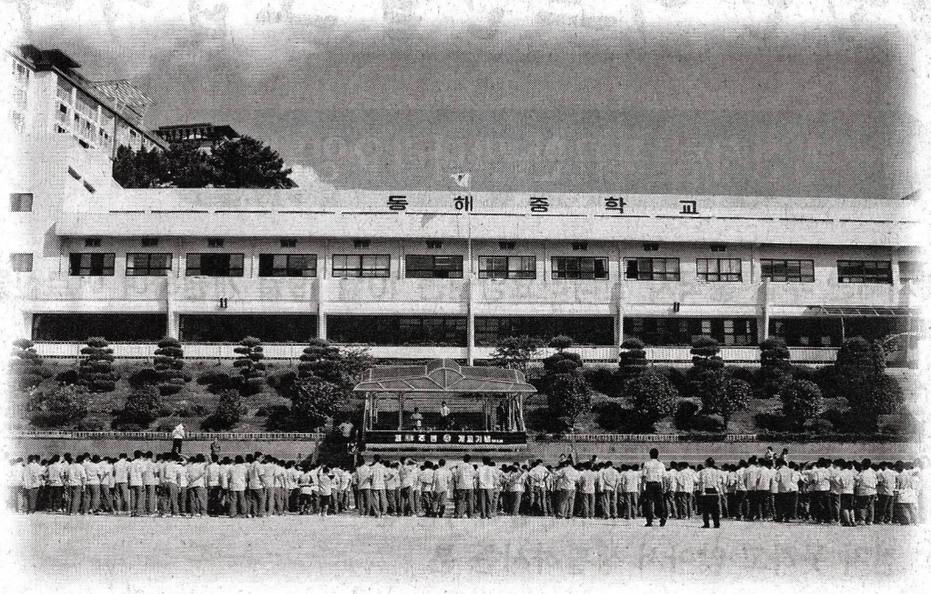
"평소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부러 꾸미지 않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아하지도 않고, 단견상견(斷見常見)을 버리며, 범성을 구분하는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범부처럼 행세하지도 않고 성인 현자처럼 행세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지금 이렇게 걷다가 곧 멈추기도 하고 다시 앉아있다가 편안하게 눕기도 하는 등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이 모두가 바로 도다."

마조의 법제자 남전보원(748~834)은 '평상심이 바로 도'라며 스승의 말을 메아리처럼 전수한다.

어느날 조주가 남전화상에게 도가 무엇인지를 묻자 "평상의 마음이 그대로 도"라고 답했다. 조주는 다시 "그곳에로 다시 애써 나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그곳에로 나아가려 애쓰는 즉시 곧 어긋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주는 "나아가고자 애쓰지 않고 어떻게 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남전은 "도는 앎에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는다. 앎은 잘못된 깨달음이요, 알지 못함은 무기(無記)이다. 만약에 참으로 의심이 없는 도에 이른다면 마치 커다란 허공과 같고 확연하게 툭 터져있다. 어찌 억지로 시비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말에 조주는 문득 깨달았다.

'평상심시도'는 이어 일상의 용어들이 공안으로 채택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목 보리수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날마다 좋은날

녹두죽

자인행 (운천사)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더위가 유난히도 나를 힘들게 한다. 땀도 별로 없고 더위도 그렇게 타지 않는 내 체질 덕분에 해마다 여름은 누구보다 수월하게 보내곤 했는데 체질이 변했는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졌는지 올 여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온 얼굴이 땀으로 범벅되고, 생전 처음으로 땀띠도 생겼다.

온 몸 여기 저기에 커다란 땀띠가 벌겋게 뒤덮고 있어 그 상처난 부위가 가려워 나도 모르게 자다가 긁게 되고 긁고 나면 따가웠다. 땀띠는 더욱 넓게 번져 마침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겨우 가라앉았지만 정작 몸은 너무 힘들다. 아마도 더위를 단단히 먹었나 보다. 입맛도 없고 힘도 없고 잠도 깊이 못자고 자꾸 갈증만 나서 찬 음료수만 찾게 된다.

덥다고 찬 음료에 선풍기만 자꾸 끌어안고 있으니 더위가 더욱 단단히 내 곁에 붙어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체력이 약해지고, 의지력도 많이 떨어진 모양이다. 한 때는 체력에는 누구보다 정말 자신 있었다. 산에 등산을 가도 항상 제일 먼저 정상에 도착했고 어떤 운동을 해도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괜히 맘이 서글퍼진다.

"불공도, 정진도, 교화도,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다며 승직자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보살들을 교화 할 수 있겠느냐"고 충고하시던 어느 선배 전수님의 말씀이 새삼 내 가슴에 절실하게 와 닿는 요즘이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했는데 큰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겨우 더위에 허덕이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 이는 내 스스로 내 몸 관리를 하지 못하여 생긴 병이라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더하다.

8월 월초불공이 절반을 넘어가던 어느 날 오후 더위에 허덕거리는 신출내기 전수가 보기에 안쓰러웠나 보다.

보살님 한분이 더위를 먹었을 때 입맛을 찾아주고 몸을 차게 해주는 여름 보양식으로는 녹두죽이 최고라며 한 냄비 끓여 가져다 주신다. 종일 점심때 억지로 먹은 밥 조금과 오후 내내 냉커피 그리고 찬 음료수만 마셔 속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살님이 가져다준 녹두죽을 아들 녀석이랑 마주앉아 두 그릇이나 뚝딱 비웠다. 축 처져 맥없이 지냈던 몇날 며칠이 죽 두 그릇에 바로 회복되어 힘도 나고 입맛도 돈는 것 같았다.

고마우신 보살님… 내일부터는 찬 음료수도 멀리하고 덥다고 선풍기 앞에만 앉을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몸도 움직여야겠다.

차지 않은 물에 샤워하고 선풍기를 켰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후덥지근한 선풍기 바람이 짜증스러웠는데 오늘 선풍기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진다. 몸의 컨디션 따라 선풍기 바람의 느낌도 달라지나 보다. 오늘밤도 열대야 현상으로 무더위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만 나는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녁을 죽으로 배를 채우니 하루 종일 거북하던 속도 편안하다. 몸도 마음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8월 월초불공 회향일 까지 보살님이 끓여준 녹두죽 덕분에 더위는 떨쳐버리고 속 편안하게 불공 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존 '수행의 길에서' 코너명을 '날마다 좋은날' 로 변경합니다.

우리들 이야기

마 음

마음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

만약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참마음이다.

만약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난타난 대상을 여읜 후에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앞에 난타나는 대상을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앞에 나타나는 대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변하여 없어질 때에는 이 마음이 곧 거북의 털이나 토기의 뿔과 같을 것이니, 그렇다면 너의 법신도 함께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면 그 무엇이 나지도 죽지도 않는 법을 닦아서 증득하겠느냐?

- '능엄경' 제1권 중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음카페 불면석 cafe.daum.net/bmsuk)

생활상식

◀ 질긴 소고기를 부드럽게 즐기려면

육질이 질긴 소고기는 무즙에 1 시간 이상 담가 둔다. 무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하여 고기에 탄력이 생긴다. 수분을 제거하고 조리하면 부드러운 육질을 즐길 수 있다.

◀ 튀김 옷의 맛을 돋우기

포크 커틀릿(돈가스)를 만들 때 튀김 옷에 참마를 첨가하면 한층 맛이 좋아진다. 튀김 가루에 참마나 다시마 국물, 소금을 첨가하듯이 튀김 옷에도 이런 재료를 첨가하면 맛이 좋아진다.

◀ 녹황색 채소를 아름답게 볶으려면

녹황색 채소를 볶거나 튀길 때는 기름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재료의 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기름이 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 보기 좋은 채소 튀김 만들기

채소 튀김을 할 때는 나무 주걱으로 재료를 떠서 기름 바로 위에서 미끄러뜨리면 재료가 흩어지지 않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튀겨진다. 나무 주걱의 평평한 경사면이 재료의 원래 모습을 유지해 준다.

◀ 마늘의 속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벗기기 까다로운 마늘의 속껍질을 벗기려면, 비닐 장갑을 끼고 마늘을 쓰다듬으면 비닐 장갑에 속껍질이 달라 붙어 쉽게 벗길 수 있고 손에 마늘 냄새도 배이지 않는다.

◀ 맛없는 쌀로 차진 밥을 지으려면

찰기가 없어 푸석한 쌀은 쌀과 찹쌀의 비율을 5 : 1 로 섞어 평소와 같은 양의 물을 붓는다. 여기에 샐러드유 1~2 방울을 떨어뜨려 밥을 지으면 차지고 윤기가 흐르는 밥이 된다. 식어도 차진 상태가 유지되므로 도시락을 싸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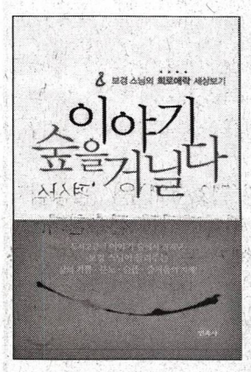
◀ 손을 더럽히지 않고 오징어 손질하기

오징어는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얼려 두어야 조리할 때 수고를 덜 수 있다. 손질할 때는 냉동된 상태에서 몸통에 칼집을 넣어 펼친 다음, 내장을 떼어내면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달의 추천도서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지음/ 민족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에서 지혜의 정수를 뽑다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의 이야기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주지 스님인 보경 스님은 다양한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야기 숲을 거닐다』는 보경 스님이 자신이 읽은 동서고금의 책 중에서 주옥같은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단순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제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4가지의 주제로 분류했다.

4가지란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다. 즉, 이 책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이다. 희노애락이 곧 인생이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게 불교의 지향이라면, 이 책은 독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깨달음과 지혜를 전해줄 것이다.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

차창룡 지음/ 북하우스

속세에 남기고 간 차창룡 시인의 마지막 작품 시집으로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차창룡 시인.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나무 물고기』등의 시집으로 현대인의 지친 감성을 따뜻하게 품어줬던 그의 시를 이제 더이상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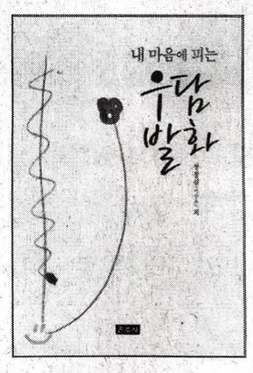
2010년 봄, 속세를 벗어나 불가로 귀의했기 때문이다.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는 시인이 출가하기 전 남긴 불교 신화 기행문이다. 이미 『인도신화기행』을 펴낸 바 있는 저자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 책은 기행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여타 기행문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대부분의 기행문은 여행지의 풍경과 여행지에서 마주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에 비해 이 책은 붓다와 붓다에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불교신화를 소개하는데, 부처님의 전생담을 비롯하여 붓다의 삶에 얽힌 신화를 알려준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부처가 태어난 룸비니 동산에서부터 열반한 쿠쉬나가르에 이르기까지 불교 성지를 여행할 수 있다.

내 마음에 피는 우담발화

청정심지음/ 운주사



불심을 문학으로 표현한 청정심의 수필집이다. 저자는 월간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뒤 『청향당의 봄』과 같은 작품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청정심의 문학세계가 다른 문인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불심'이다. 저자의 글은 정신적 수행, 부처님을 향한 기도, 불교적 가르침의 실천 등을 표현한다. 『내 마음에 피는 우담발화』 역시 불심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다수의 수필을 묶은 책이다.

반야심경에서 깨달음까지

조규일 지음/ 좋은도반

흔히 우리가 반야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줄인 말이다. 반야심경은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전이다. 그리 길지 않은 경전인데 깨달음의 요체를 모두 담았다.

이 책은 반야심경을 해석한 책이다. 반야심경의 원문과 더불어 한글로 풀이한 반야심경을 싣고 반야심경의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수행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논한다. 반야심경에 담긴 공사상, 수행론 등 불교의 주옥같은 지혜의 바다를 탐험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불교상식⑱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부모은중경〉은 중국 후진의 구마라집의 한역본으로, 전해지는 판본만도 50여종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잉태의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가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얘기죠. 유교의 '효'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처럼 절대적이며 권위적인 데 비해서, 이 경전에선 부모의 자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불교의 효사상'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경의 마지막 부분에선 최상의 보은 방법은 '자식이 수행정진하며 진리를 찾아 사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죠.

-윤우채 기자

총지종 보리자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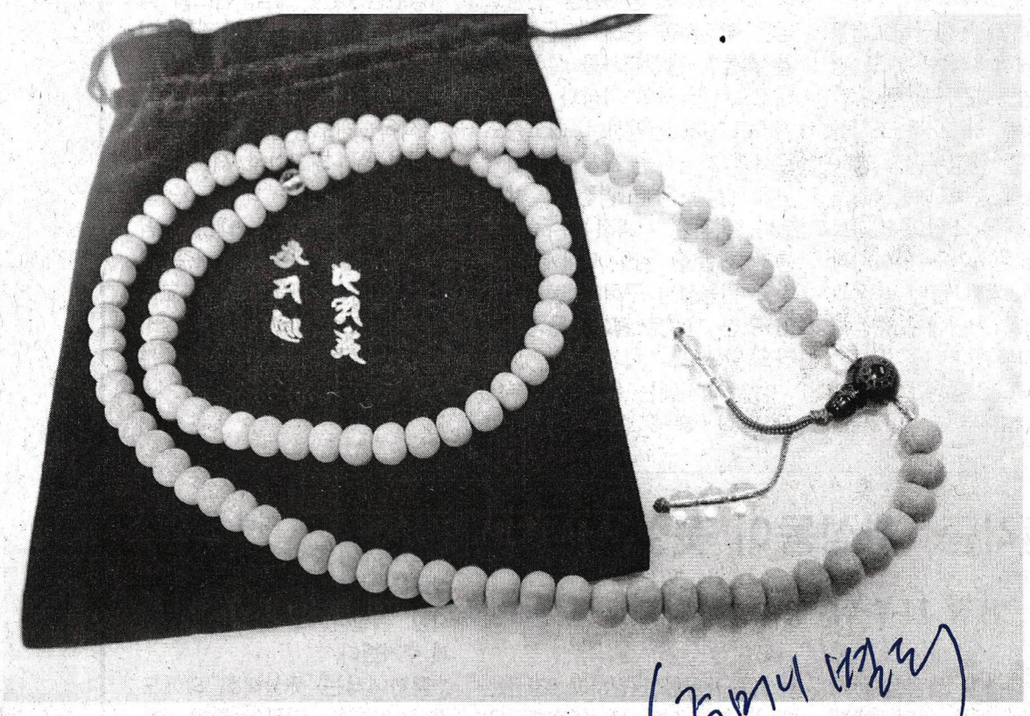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보리자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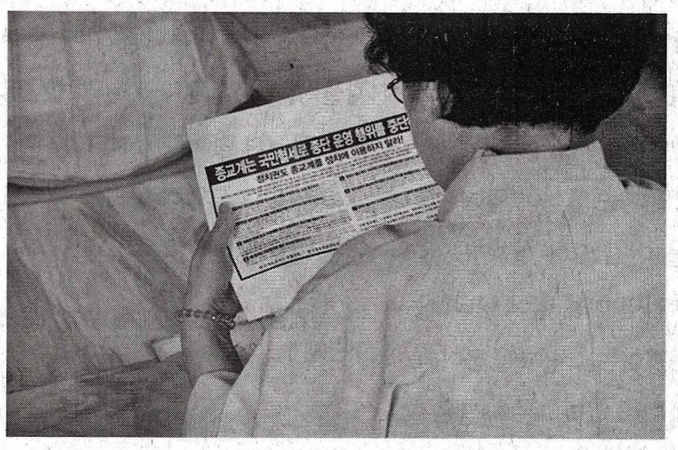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불교폄훼 광고 규탄

조계사, 종교갈등 조장 중단 촉구



▲ 지난 1일 열린 조계사 신도회 신도총회에서 한 불자가 개신교계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는 지난 8월 1일 대웅전에서 신도총회를 열어 개신교계의 불교폄훼 광고를 규탄하고 불교종교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개신교단체가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조계사 신도회가 '불교폄훼'를 중단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사 신도회는 지난 1일 대웅전에서 신도총회를 열어 "기독교가 자행하고 있는 불교폄훼 및 종교 갈등 조장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혈세로 진행 중인 선교행위는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정당한 예산집행 축소행위도 중단하라"고 촉구, 결의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 5개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 7월 중순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일간지 광고를 통해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

조계사 신도회는 신도총회에서 "이들의 주장은 불교를 폄훼하고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개신교는 불교를 폄훼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몰지각한 종교갈등 조장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불교폄훼 발언에 대해 주요사찰이 신도총회를 통해 규탄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도회는 박영환 수석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개신교는 종교사학 등에 지원된 천문학적인 국고예산을 지원받지 말고, 국민의 혈세로 선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종교형평성을 빙자해 전통문화에 대한 정당한 예산집행을 축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계사 신도회는 결의에 앞서 "1992년 동화사에 통일대불 우상이 세워지면서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고, 2003년엔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다"는 등의 억지주장을 담은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은 "타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악의적인 비방을 앞세우는 기독교의 자태를 더 이상은 좌시 할 수 없다며 불교계의 자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종교 갈등 조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이어 종교편향 행동지침을 공포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행위를 조계사 신행상담실을 통해 접수 종단차원의 대응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일간지 소액광고로 개신교 불교폄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총회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조계사 신도회는 2차 신도총회를 오는 8일 정오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해 개신교의 종교편향에 대해 재차 중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첫 2급 승가고시 시행

승가 전문교육 재교육, 법계 체계 다진다

조계종 최초로 2급 승가고시가 시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과 고시위원회(위원장 종석스님)는 지난 7월31일자 불교신문에 법계법 제11조와 승가고시법 제9조에 의거, 불기 2554(2010)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을 공고했다.

합격하게 되면 종무원법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에 취임할 수 있다. 아울러 비구 스님은 대덕, 비구니 스님은 혜덕의 법계를 품수한다.

2급 승가고시는 5급 4급 3급 승가고시에 이어 2001년 교육법 및 법계법 개정으로 마련된 현행 승가교육 및 법계 체계를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결실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 확립에도 의의가 있다.

첫 2급 승가고시는 오는 11월4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격은 2001년 제1회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이다. 시험방식은 논술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1교시 논술은 교학 선(禪) 포교 복지 사회(생태환경 통일)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시험을 치른다.

특히 2교시 면접은 그간의 수행이력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면밀히 살피기로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각시켰다.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배점을 논술의 2배로 하는 등 면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논술의 배점은 100점, 면접의 배점은 200점으로 총 300점 만점이다.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통과된다. 합격자 명단은 오는 11월12일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시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수행이력서, 수행이력 증빙자료 등이다. 응시원서 및 수행이력서는 교육원과 교구본사에 소정양식이 비치돼 있으며, 종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수행이력서는 내(외)전 교육경력, 안거, 포교, 복지, 사회활동, 소임 등 양식에 맞게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졸업증명서, 안거증, 임명장,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조계종, 가사불사 지원 8월부터 연말까지 접수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장 재안)가 조계종 통일가사 보급을 위해 '가사불사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09년 가사불사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 중 직할교구에 위임된 금액 중 1370만원을 활용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직할교구 재적승과 재직승(주지, 총무, 재무, 교무 소임자)이다. 지원사업은 직할교구 사무처에 '가사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지원여부를 살펴 가사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 가사 지원은 개인별 1회에 한한다. (02)2011-1930

서울노인복지센터 3회 '노인영화제'

총 91편 작품 응모

▲ 지난해 대상 수상작 조경숙 감독의 〈나의 망초 이야기〉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스님)가 주최한 '제 3회 대한민국 서울노인영화제 영상 공모전'이 91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성황을 이뤘다.

7월 19일부터 2주간 작품을 접수한 결과 60세 이상이 참가하는 자유주제 작품에는 45점이 접수됐으며, 60세 미만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노인에 대한 소재나 주제 작품은 46점으로 총 91점이 응모됐다고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밝혔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응모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으며 특히 60세 미만 젊은 감독들의 작품이 작년 보다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젊은 감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작품심사는 주제전달성, 참신성, 기술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평가되며, 예심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본심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심사위원장은 이두용 감독이 맡았으며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이기호(소설가,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오정훈(미디액트 교육실장), 권중돈(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진(영화평론가) 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스님은 "이번 '제 3회 대한민국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젊은 감독의 참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울노인영화제가 노인과 젊은이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고 보우국사 자료 출간

태고종 대륜불교문화硏서

태고종조 태고보우 국사 탄신 제709주년을 맞아 태고보우 국사와 국사에게 임제법맥을 전수한 석옥청공 선사의 평전이 출간됐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은 7월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석옥·태고 평전〉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석옥·태고 두 조사를 청하는 태고종 행정부원장 청봉스님의 설선의 봉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대은 스님의 경과보고,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무공 스님의 평전 불단 봉정과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게 증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옥·태고 두 조사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의 귀감이 되고 근본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15년간 연구·조사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종파를 회통한 통합불사를 실현하신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과 행적을 기리고 널리 선양하며, 태고종도로서의 자긍심을 크게 고양하기 위해 〈석옥·태고평전〉이 발간됐다. 평전은 시대적 화두인 소통과 화합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고 원융정신 구현과 불교사적인 귀한 자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덕화·혜종 스님, 원로의원 혜암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 교육원장 보경 스님,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 종무조정실장 청광 스님, 교류협력실장 능해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경기북부종무원장 혜각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담 스님, 경기중부종무원장 서암 스님, 중앙사정위원 혜성 스님, 신도회 명예회장 김철회 박사, 불교춘추사 최석환 대표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석옥·태고평전〉은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태고사상 제6집으로 편저됐다. 책에는 태고 스님의 발자취와 구법의 길, 태고 스님에게 불조의 심인을 전해준 석옥 선사와의 만남, 원융불교의 실천, 태고와 석옥의 어록, 탑비명, 구법논문 등이 400여 쪽 분량으로 담겨져 있다.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대회

8월 11부터 경주 위덕대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정사)은 8월 11~12일 경주 위덕대에서 제5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초등학생) 풋살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리그전으로 16강을 선발하고 8강전은 대진추첨을 통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대회까지 성적위주의 시상으로 인한 지나친 승부의식이 수차례 지적됨에 따라 올해에는 개최 취지인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매너플레이상, 응원상, 단합상, 봉사상, 예절상, 질서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행사에서는 풋살대회 외에도 종단 스승님과 감독이 함께 하는 족구대회, 저학년 자성동이 친선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2010 만해축전'…오는 11일~14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

▲ 2009년 만해축전 만해대상 시상식.

'2010 만해축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된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는 '만해축전'은 만해대상 및 유심작품상 시상식, 학술심포지엄, 전국고교생백일장, 시인학교, 서예전, 대동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진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만해대상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명사랑과 겨레 사랑, 평화 사랑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한 이래,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수상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해왔다. 올해 만해대상은 평화부문에 이동건 전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실천부문) △존 랠스톤 소울 국제 PEN클럽 회장 △정진규 현대시학 주간(이상 문학부문) △존 던컨 미국 UCLA 동아시아학과 한국학연구소장 △김학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상 학술부문) 등 6명이 수상한다. 만해축전 입재식과 함께 열리는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2시 열린다.

이에 앞선 11일에는 제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권기호 시인, 김교한 시조시인, 김초혜 시인, 조동화 시조시인 등이 특별상과 시.시조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만해축전의 대표 행사로 손꼽히는 학술 심포지엄은 올해 더욱 풍성해졌다. 모두 22개 단체가 참가해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 전망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6월부터 전개된 학술 심포지엄은 9월까지 이어지며, 장소도 각지에서 진행돼 전국적인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축전 기간 열리는 학술행사로는 △현대시조의 미학적 전망과 탐색(8월11일, 대구시조시인협회) △우리 현대시의 아포리아(8월12일, 현대시학) △한국문학의 불교 제재 수용과 상상력(8월12일, 현대불교문인협회) △아시아.유럽문학의 경계를 넘어(8월13일, 창작21작가회, 이상 만해마을) △환경과 문학(8월13~14일, 한국문인협회, 문경 문협연수원) 등이 있다.

문학 이외에도 정치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도 열려 다양한 주제로 지평을 넓혔다.

만해축전은 예비 문학가와 문예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있어 인재불사에도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가 '전국 고교생 백일장'과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다. 오는 8월12일 오전11시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백일장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와 시조, 산문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백일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관련 행사 가운데 권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축전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상, 강원도지사상 등이 주어지며, 이밖에도 장원, 차상, 치하, 장려상 등 모두 46명을 시상한다.

이달 말 수상자가 발표되는 서예전 또한 대상에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한글부, 한문부, 문인화부로 나눠 진행된다.

'능산리사지' 특별전

부여박물관 오는 15일까지

▲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국보 287호 백제금동대향로.

국보 287호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된 부여 능산리사지의 발굴 성과를 집대성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오는 8월15일까지 '백제 중흥을 꿈꾸다-능산리사지'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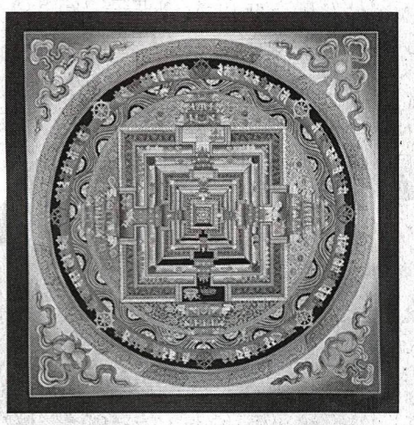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6년간 사지 발굴을 통해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와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288호) 등 400여 점의 유물이 소개된다.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주칠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꽃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주칠편은 발견 사례가 드문 것으로, 고대 칠기편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작기법과 백제 회화가 연구에 주목되는 자료다.

능산리사지 특별전은 모두 7부로 나눠 구성했다. 1부 '능산리 절의 창건배경 및 입지'부터 2부 '백제 중흥의 꿈과 좌절, 능산리사지'는 능산리 사찰의 창건부터 폐사까지에 관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찰의 기능과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3부 '능산리사지 가람이야기'와 4부 '능산리사지 목간에 남겨진 이야기'가 배치됐다.

한국 사리장엄의 첫 장이 능산리 절에서 시작됐음을 보고 싶다면, 5부 '한국 사리장엄의 역사, 이곳에서 시작되다'를 찾으면 된다. 이밖에도 '유물로 본 능산리 절의 역사', '중흥을 꿈꾼 백제, 백제금동대향로를 땅에 묻다'까지 감상하면 능산리사지의 모든 것을 보는 셈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능산리 절을 디지털로 복원한 3D 영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각광받고 있다.

해인사, 네팔 만다라 개최

만다라, 등 50여 점 전시



▲ 네팔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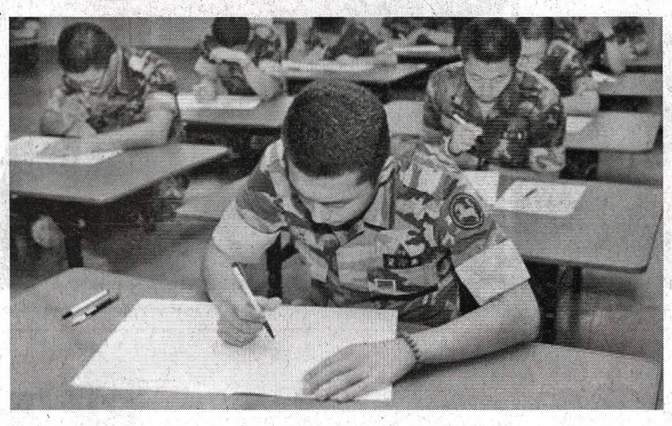
네팔 만다라 특별전이 지난 8월 3일까지 해인총림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렸다. 네팔관광청이 주최하고 한국네팔친선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네팔 정부가 엄선한 만다라 및 탱화 등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특별전은 네팔 불교 예술품의 국내 홍보와 양국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전시회 판매 수익 일부를 사회에 회향할 계획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네팔친선협의회 관계자는 "네팔 만다라의 진수를 선보여 양국 불교의 우호를 증진함과 동시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탁할 것"이라며 "네팔 난민촌 식수원 개발과 빈민구제, 한국 독거노인 돕기 성금으로 활용되는 전시회에서 좋은 공덕을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전국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

제1회 군종병 불교경시대회 개최
은정불교문화재단, 25사단서



군포교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전국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가 8월 4일 9사단 호국 백마사(주지 현조 이동경)와 25사단 호국 비룡사(주지 지용 구윤호)에서 동시 개최됐다.

군포교 현장의 사기진작과 군종병들의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은정불교문화재단(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마련한 이날 불교교리경시대회에는 9사단과 25사단 예하부대 군종병 64명이 참가했다.

이번 불교교리경시대회는 각 부대 군종병을 대상으로 신자 파악 및 포교요령, 개인상담 등을 교육하는 군종 집체교육 기간 중 실시키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의 추천을 받아 두 사단에서 시범 실시됐다. 시험은 은정불교문화재단 교리경시대회 운영위에서 맡아 조계종출판사 〈청소년불교입문〉를 기반으로 기초교리 등 불교상식 전반에 걸쳐 객관식 40문제, 주관식 4문제, 서술형 1문제 등 총 45문항으로 출제됐다.

이웃종교계의 전군구국성회, 찬양회 등과 같은 전군적인 행사가 부족한 군포교 현장에서 이번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는 군내 불교계 대규모 행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휴가 중 복귀, 시험에 응시한 9사단 보수대 조용연 상병은 "부대를 대표하는 군종병이라는 사명감에 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매주 토요일 9사단 군종병들끼리 여는 용화회법회를 통해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9사단 통신대 장인성 일병도 "이번 시험을 준비하며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군종병 활동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응시 소감을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재단 측은 "이번 시범 실시에 이어 내년도에는 군종교구와 협의해 군단 집체교육에서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를 실시하는 등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1명)과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2명), 우수상인 군종교구장상(5명)에는 각각 상금과 사단장 포상휴가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0월 23일 개최된다.

중앙승가대 박사 2명 배출

지은 · 각정스님, 19일 학위

중앙승가대 개교 후 첫 학술박사가 배출된다.

중앙승가대는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월 19일 거행되는 2009학년도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지은· 각정스님이 승가대 대학원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은스님은 〈규봉 종밀의 선사상 연구〉로, 각정스님은 〈현대한국 불교문화의 대중화 연구-선수행, 연등축제,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 중심으로~〉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19일 있을 학위수여식에는 총장 태원스님, 대학원장 종석스님 등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제주 법화사, 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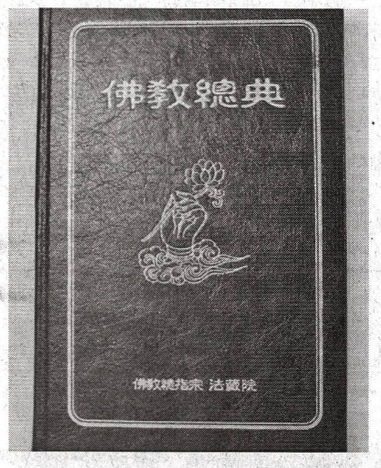
장보고 헌다례도 열려

제주도 서귀포시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는 지난 7~8일까지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해신 장보고에 드리는 헌다례, 연음식 시식 및 연꽃차 시음, 연음식 무상공양, 연잎차 만들기 체험, 소망등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또 서예가 현수언씨의 가훈 써주기, 연꽃 그리기 대회, 불교영화제(화엄경), 장선우 감독과의 대화, 연꽃음악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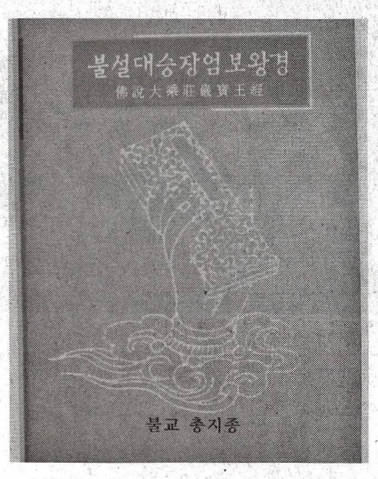
축제기간 동안 강명희 서양화 초대전, 인도불교 8대 성지를 찍은 지범스님의 사진전, 불교용품 및 한국전통식품 판매 행사도 함께 열렸다.



불교총전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현교(顯教)와 밀교(密教),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여러 경전 중 그 핵심을 가려 뽑아 편찬되었다. 이 책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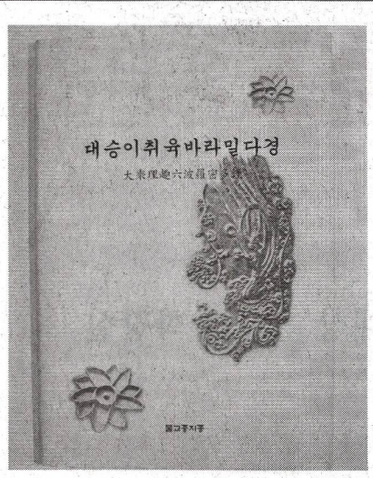
국판/ 정가 35,000원/ 불교총지종 출판부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 정가 7,000원/ 불교총지종 출판부



총지종의 소의 경전. 반야 사상에 기초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 궁극적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국판 / 정가 15,000원/ 불교총지종 출판부

△입교개종 △교의대강 △옴마니반메훔 △총지종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 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칼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총지종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가능하다.

정통밀교불교총지종

변형국판/ 불교총지종 출판부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호국기원 대법회 참가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한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김 은 숙
(서울경인 지회장)

먼저 우리 총지종 가족께 감사와 찬사부터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굳은 다짐으로 새해불공을 하던 때가 금방인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하반기 불공도 회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불공을 마치면 해마다 7월 16일 회향법회를 떠나지요. 늘 무엇을 하던지 일년에 한번쯤은 전 사원이 한마음으로 같이 하고픈 바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에도 전 사원이 다 참여하였고, 호국안민법회에도 다같이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어 환희한 마음이었습니다.

♣ 삼성관광 명품버스(부인 박보살 음식솜씨도 명품)를 타고 총지사 앞에서 8시에 출발했다. 인원이 한 차가 못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총지사 보살님들, 정사님, 전수님, 각자님들까지 모시고 만차가 된 명품버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갈 때는 신록이 짙은 수목 사이로 조금씩 비가 내리면서 구름이 오고 가고 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내다 보면서 차량불공, 개인불공을 했다. 49일 불공을 마치고 모처럼 가져보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음성 휴게소에서 잠깐 다른 사원분들과 인사만 하고 준비관계로 제일 먼저 출발했다. 짧은 시간에도 떡을 전해주고 가는 분, 누룽지를 주고 가는 분, 등 서로를 챙기는 살뜰한 고마움에 감동되어 행복감을 안고 괴산 목적지 하늘야영장에 도착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치가 좋았다. 우리가 법회를 할 강당도 무대와 에어콘, 선풍기가 갖추어져 있어 마치 우리 서울경인 식구들을 위해 꾸며 놓은 듯 아주 적합해 보였다.

강당에 모여 통리원장님과 각 사원 정사님, 전수님, 노보살님, 노각자님, 보살님, 각자님 등 많은 분이 엄숙하게 호국안민 기원법회를 잘 마쳤다.

점심식사 하는 장소도 비가 가끔씩 내려도 비맞지 않고 불편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점심을 맛있게 끝내고 조금 휴식 후 2부 순서로 각 사원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졌다.

다른 해에는 개인이 무용과 만담, 춤과 노래로 조촐하게 끝냈는데 올해는 각 사원마다 20~30명이 무대에서 장구치고 춤과 노래로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총지사는 올해엔 기권을 하려고 했었다.

이번 회향법회에도 늘 승단과 교도가 무슨 일이든지 한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나의 서원이었다. 이번 우리 총지사는 북과 꽹과리, 징과 춤으로 승속이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스승님 세 분과 노,소 보살님들과의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의상과 소품을 빌렸다. 스승님과 보살님들도 너무나 좋아하며 솔선해서 나섰다. 조금 늦게 마음을 낸 탓으로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 두 번 만나 맞춰 보고 연습을 했다. 많이 틀리는 것이 웃음을 자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70대와 4~50대 보살들이 어울려 꽃바구니를 들고 나물 캐는 아가씨 춤을 추었고, 스승님 세 분, 보살님 7분이 소고춤을, 각자님 한 분이 꽹과리를 치고 보살 한 분이 장구를 쳤다. 징의 큰 소리로 소통과 화합을 외쳤다. 각자가 역할분담을 하여 제일 마지막 순서로 나가 최선을 다했다.

▶ 부산 경남 교구 호국기원법회.

공연을 마치고 객석쪽으로 이동하여 모든 분들을 다 일어서게 해서 한바탕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모든 순서를 착오없이 끝내고 사극을 촬영하는 문경 세트장을 구경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모두 피로하여 잠이나 자야지 하는 나의 계획은 빗나갔다. 보살님들의 지칠줄 모르는 에너지와 끼! 그 폭발적인 무대가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번 법회는 종단에서 큰 배려와 많은 보살님들의 협조로 서울이 가까운 지역에서 저녁식사까지 잘 하고 올 수 있었다.

지난 부처님 오신날 행사때에는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울경인 사원이 모두 모여 총지종 연희단을 결성했다.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과 감동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 따가운 햇볕이 쨍한 운동장에 한복으로 앉아 있는데도 불평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실력있는 종단이 되어야 겠다는 다짐을 했다.

동국대학 운동장에서 조계사 앞까지 큰 연등을 들고 행진을 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도 감탄을 하셨는지 우리 연희단이 7월 14 조계사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자랑스럽게 상(상금과 크리스탈 연꽃상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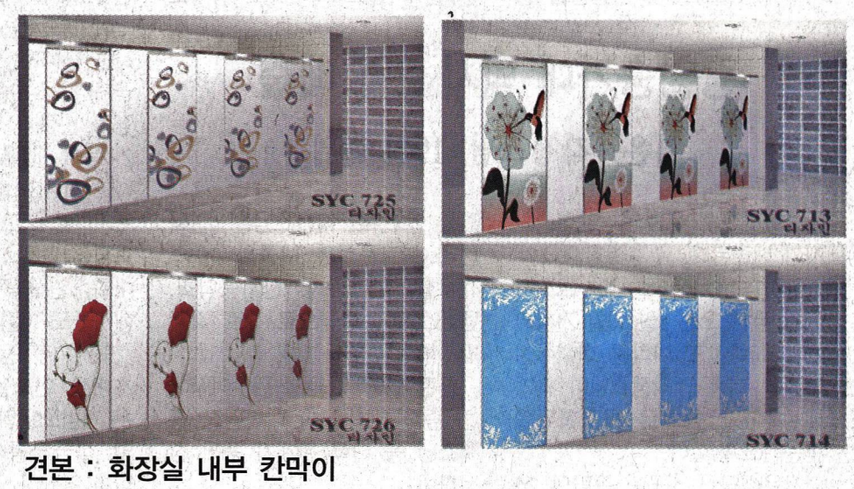
신도회장으로서 힘들때도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다. 훌륭하신 스승님이 심어주신 법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따라 주신 보살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날이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신도회장으로서 좋은 본보기 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필요한 도반으로 친구같이 농담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는 관계가 되고 싶었다. 모든 이들과 같이 지내지는 못했지만 모든 보살들께 좋은 도반으로 기억될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삶에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 직위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일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위나 돈,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 가에 따라 삶의 가치는 결정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우리 다같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한마음 되어 승속이 서로 소중히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또 모두 마음을 모아 시대에 맞는 불공법과 제도방편을 연구하여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한 반듯한 사람을 배출하는 총지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신양큐비스』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큐비클 생산/ 판매/ 시공 전문 기업
♠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전문업체.



견본 : 화장실 내부 칸막이

대표 김 한 옥
Mobile. 010-8953-2304
E-mail.okkimy@paran.com
http://www.sycubis.com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51-8
TEL. 031-403-7395~6
FAX. 031-403-7349
〈서울총지사 교도〉

신 양 큐 비 스
큐비클 생산 / 판매 / 시공

기 고 서유럽 여행기②

몽블랑의 스위스/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

이 인 성 (총지사)

♣ 프랑스 콩코드 광장

파리 한 가운데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한다. 처음에는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리다 1790년 대혁명이 있은 뒤부터 '대혁명 광장'으로 불리었다.

♣ 노트르담 성당

장미꽃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햇살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지닌 노트르담 성당이 처음 지어진 것은 1163~1345년 루이 7세때이다. 프랑스 대표적인 고딕양식의 성당으로 입구엔 세 개의 섬세한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 퐁뇌프 다리

파리 세느강에 놓인 다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퐁뇌프는 1578~1604년에 만들어 졌다. 조성 당시 '새로운 다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붙여 졌지만 이보다 앞서 만들어진 다리들이 모두 재건되면서 지금은 가장 오래된 다리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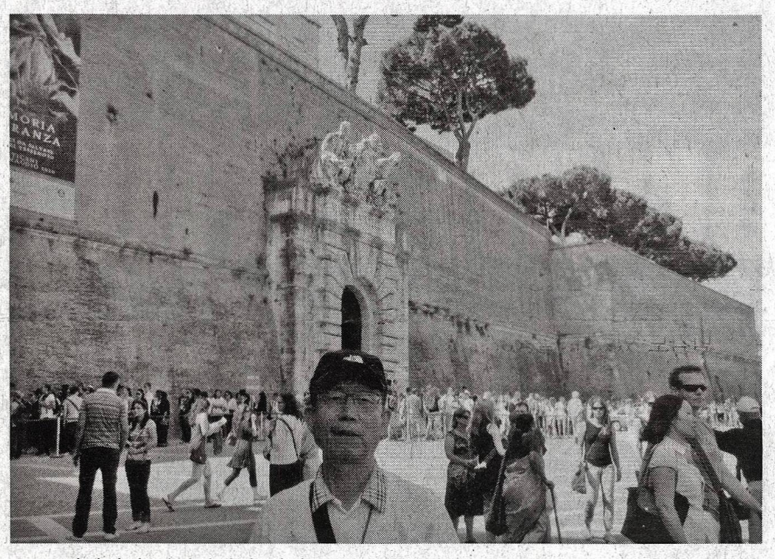
파리 시내 아파트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파리 시내는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높은 건물은 시외에 지어야 한다.

루브르 박물과, 콩코드 광장, 개선문, 패션과 문화의 거리 상제리제 거리, 에펠탑 전망대 관람, 세느강, 그리고 유람선에 탑승해 고딕양식의 걸작인 노틀담 성당과 파리의 시발점인 시테섬 등을 보았다. 루브르 박물관 관광때엔 수신기를 착용하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에스 카르고는 달팽이 요리다. 프랑스식 버터향의 소스와 더불어 고소하고 향긋한 맛을 강조한 독특한 향이다. 이 요리에는 식용 달팽이의 뮤신이 콘드로이친 황산이 있는데 사람의 성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며 이를 섭취하면 피부 세포조직을 결합, 노화방지, 주근깨, 기미 등이 없어지고 변비와 정력에도 좋다.

● 스위스

TGV에 탑승하여 파리를 출발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인 레만 호수와 영국 공원의 꽃시계 등 간단한 시내 관광을 한 후 샤모니로 이동했다.



▲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필자.

♣ 제네바 쥬네브

인구 20만명의 유럽 본부가 있는 곳이다. 레만 호수에 세계적인 갑부들이 산다. 꽃시계가 있는 영국 공원은 영국사람들이 개발한 사교계가 있는 곳이다. 스위스는 41,300 제곱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800만명이 채 안되고 인구의 65%는 독어권이다.

주리히는 독어권의 큰 도시로 칼뱅이 종교개혁을 했다. 시계산업은 불어권에서 했다. 1815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그후 스위스 연방 공화국이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불, 잘 사는 동네는 7~8만불이 된다. 스위스 알프스는 몽블랑으로 '몽'은 산 '블랑'은 하얗다는 뜻이다. 해발고도 2000미터 높이가 4810미터이다. 몽땅베르산에 1861년 산악열차를 놓았다.

샤모니로 이동하여 중식 후, 산악열차를 이용해 몽땅베르산에 올라 메르드 글라스 빙하의 웅장함을 감상하고 밀라노로 이동했다. 두오모 성당과 스칼라 극장 등 시내 관광 후 저녁을 먹고 호텔로 이동했다.

퐁뒤는 스위스의 명물요리로 백포도주와 치즈를 녹인 소스에 잘게 썬 빵을 찍어 먹는 치즈 퐁뒤와 샐러드 오일에 쇠고기를 튀겨 먹는 미트 퐁뒤 두 가지가 있다.

● 이탈리아

밀라노, 제노바, 톨리노가 이태리 3대 경제도시이다.

♣ 간단한 현지어

- 본조르노 : 좋은 아침입니다.
- 그라지에 밀레 : 대단히 고맙습니다.
- 스쿠지 : 미안합니다.
- 디 니엔때 : 잘 모르겠습니다.
- 논파 니엔때 : 괜찮습니다.

밀라노는 16세기 초반 폭격을 많이 맞았다. 유럽 건축사는 성당을 보면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한 성당은 유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주교자 성당은 마리아 탄생 성당이다.

라스탈라자는 오페라 극장인데 1768년 지었다. 그러나 2차 대전때 폭격을 맞았다. 1,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발전하게 되었다.

패션 산업의 도시로 가족기업 50~100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많이 하며, 오나시스 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의상을 입은 후 많이 발전했다.

▲ 알프스산 앞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미켈란 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 유명하다. 양치기 목동의 7개 마을이 점점 커져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스를 지배하며 농업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1,000여년 전이다.

476년 서로마가 몰락하면서 동고트, 반달족이 들어 왔다. 800년 까를 대제가 유럽을 재통일 하고 프랑크 왕국이 되었다. 서프랑크는 프랑스, 동프랑크는 네덜란드,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반도가 되었고 962년 신성 로마제국이 되었다.

13세기 부터 밀라노 공국으로 철을 다루는 산업이 발달했다. 직물산업, 견직물 산업이 발전하여 미네랄 성분의 물로 염색이 발전하게 되며 실크를 OEM방식으로 수출하게 되어 지금부터 7~800년 전부터 세계의 패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로 이동했다. 몽마르디아 평야는 보리, 밀을 심는다. 건초를 여름내 심고 말아서 가축들에게 먹이고 수출도 한다.

빠르마는 햄, 치즈로 유명하다. 생햄은 돼지 다리를 소금이나 소금물에 절여 몇개월 걸어 놓는다. '하몽'이라 하여 스페인에서 유명한 햄이다.

까리라 지역은 고급 대리석을 까는 지역이다. 대리석 가공 공장이 있다. 기원전부터 2000년 이후 까지 파서 쓸 수 있으나 고가이므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수입하여 가공해서 수출하기도 한다.

미켈란제로는 24살에 돌에 삐에따 성을 조각해서 천재 소리를 들었다. 피사의 사탑은 지반을 잘 다치지 않고 지어서 남쪽으로 기울어 지고 1350년 완성되었다. 기둥을 둘러서 북쪽으로 기울게 하였다.

1990년에 유네스코와 함께 기울기 보정작업을 들어 갔는데 2400만불을 들여 10년간 0.5도(44센티) 보정이 되었다. 북쪽에서 흙을 파냈다고 한다.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피사에서 대학을 다니고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였다. 의대를 중퇴하고 수학을 전공하여 교편생활을 했다 한다. 피노키오를 쓴 필명 꼴로디의 어머니 고향이다. 밀라노에서 피사는 약 350킬로미터로 4시간 소요되고 피사에서 로마까지는 약 340킬로미터로 3시간 반이 걸린다. 로마의 한 호텔에 도착하였다.

(다음호 계속)

▲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 · 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모집시기 : 수 시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연습장소 : 총지사
◆ 연 락 처 : 이 연 수 단 장
02)552-1080~3(대)

2010년 9월 30일(목) ~ 10월 4일(월)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문의: 02)508-8933, 552-1080~2

주관: 불교총지종 Buddhist Chongji Order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통불교문화원